

# “가짜뉴스 인한 시장 불안 ‘경계’ ”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인정

日 수출규제 범국가적 대응

경제 활력 증대 정책도”



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정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감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제 위기를”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 활력 증대, 민생 등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민생 경제를 더욱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정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 또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 빈곤층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생계비 절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공정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재차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의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또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뉴스



황의탁 전북도 의원은 의정수당 등을 장애인복지시설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 “세비 반납 공약 지킨다”

황의탁 도의원, 5000만원 기부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시절 공약한 ‘세비 반납’ 약속을 지켰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원 재직기간 받게 되는 연봉 전액을 무주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활동비 5000만원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에게 전달하게 됐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은 무주 관내 하은복지재단(원장 임대혁)과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영제)에 10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하은복지관 임대혁 원장은 “낯은 장애인 숙소 개선과 주거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무주종합복지관 이영제 관장은 “치료를 부족으로 고민이 큰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먼저 공약을 지킬 수 있어 감사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자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탁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초선의원으로 전북도의회 제11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액상습채납자 감치·음주운전 면허정지

지방세 관련 법안 입법예고... 내달 말 발의

행정안전부가 올해 12월 감면특례가 일몰되는 지방세 중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것은 물론 10%포인트 세금을 추가 감면한다. 산업단지 등 중소·벤처기업 집적시설도 감면 기한을 연장해 총 1조2000억원 상당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액·상습채납자 감치·자동차세 상습채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세금을 덜 내려고 거래가격을 허위로 낮추는 ‘다운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취득세 세율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

련 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채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번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이 방안엔 따르면 고액 상습채납자 감치명령제, 자동차세 상습채납자(10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이 담겼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 국세는 1억원 이상인 경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유

치징에 유치한다.

또한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 고액채납자가 되는 경우, ‘지방세 조합’을 만들어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3000만원 이상 채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전국 합산 고액채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처분하고, 지자체가 재산을 압류해 공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상습 채납한 경우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현행 조치를 넘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생계형 채납자는 제외된다. 고액채납자의 지방세는 5000만원 미만이면 이상이든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채납자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세금을 덜 내려고 거래가격을 임의로 떨어뜨려 허위신고하는 ‘다운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율도 개편한다. 주택유상 거래 취득세율은 현재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해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시 3%로 책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기준이 되는 5억9000만원, 8억9000만원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억~9억원 이하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1.01~3% 내로 세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의 개정안을 내달 10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 “구 자립학교, 발달장애인 자립 기관 거듭나야”

최영심 도의원, 자립원 부지 활용방안 모색 토론회

구 자립학교 부지를 전북지역 전체 장애인에게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구 자립학교를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연계를 위한 평생교육관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전담 TF를 꾸려서 발달장애인들의 잠재적 능력을 일깨우고 직업, 직무 개발과 연계하는 전북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센터를 만들기 위해 전북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집성 기자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구 자립학교를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연계를 위한 평생교육관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전담 TF를 꾸려서 발달장애인들의 잠재적 능력을 일깨우고 직업, 직무 개발과 연계하는 전북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센터를 만들기 위해 전북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집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천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